

2025년 3월 11일의 메시지

**‘동일본대지진은 한순간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파괴하고 형형색색의 세상을 회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조금씩 색을 되찾고 힘차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라마치 다이이치 중학교 스즈키 마히루 씨 ‘미래로의 편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거대한 지진과 해일, 그리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대미문의 복합 재해는 1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흥을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민 여러분의 필사적인 노력과 국내외로부터의 따뜻한 지원에 힘입어 후쿠시마의 희망 빛은 확실히 더 빛을 발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본현 출신 선수가 현민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준 파리 2024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14년 전 오늘 도미오카마치에서 재해를 입은 배드민턴 경기 혼합 복식의 와타나베 유타 선수와 이가라시 아리사 선수가 고난과 갈등을 극복하고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획득하여 후쿠시마현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원전 사고 후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함께 추진해 온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동안 만남을 통한 교류를 거듭하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2호기에서 핵연료 잔해의 시험적 반출.

그 양은 0.7그램. 880톤에 이른다고 하는 핵연료 잔해 전체에서 생각하면 극히 소량이지만 14년 동안 알 수 없었던 원자로 내부의 실태를 해명하기 위한 귀중한 한 알입니다.

한편, 아직도 피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2만 5천여 명.

고향으로 돌아와도 많은 이웃과 살았던 예전의 일상은 잃어버린 채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폐로 작업이나 제거 토양 등의 현 외 최종 처분을 위한 노력 등 원자력 재해 특유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후쿠시마현은 과제와 극복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진 재해를 모르는 첫 세대로서 지진 재해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라카와 다이니 중학교 요시다 소스케 씨 ‘미래로의 편지’)

작년 11월, 지진 재해와 원전 사고 발생으로부터 5,000일이 지났습니다.

지진 재해를 모르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가운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현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젊은 세대 여러분이 지진 재해 학습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분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자기 일로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가 바로 미래의 희망입니다.

*‘지금의 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와시로 중학교 엔도 미사키 씨 ‘미래로의 편지’)*

지진 재해와 원전 사고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의 이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나 안전 신화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이웃과 더불어 착실하게 걸어 나가며 하나하나 실현해 온 것도.

지난해 10 월, 후쿠시마현 출신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니시다 도시유키 씨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후쿠시마 부흥의 발자취를 전하는 ‘동일본대지진·원자력재해전승관’의 입구에서는 니시다 씨의 부드럽고 따뜻한 후쿠시마 사투리의 내레이션이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향 후쿠시마의 부흥을 걱정하여 지진 재해 직후 심각한 뜯소문에 의한 피해에 시달리는 후쿠시마의 농산물을 불이 미어지도록 입에 넣고 ‘후쿠시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후쿠시마”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니시다 씨의 바람을 가슴에 새기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후쿠시마현은 내년에 탄생 150 주년이라는 기념적인 해를 맞이합니다.

선인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과감한 도전을 계속하여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왔기에 지금의 후쿠시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도 언젠가 후세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선배들이 노력한 역사 위에 우리의 지금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니시다 씨가 생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웃는 얼굴로 가득한 후쿠시마현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 아래 현민 여러분과 후쿠시마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과 함께 우리의 미래 지도에 색을 입혀가면서 밝고 풍요로운 후쿠시마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